

아이에스이커머스, 1분기 실적 공시

- ▶ 2018 1Q 매출 81억원, 영업손실 7억원, 당기순이익 0.2억원 기록
- ▶ 제휴채널 판매 감소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한 선투자 비용 발생
- ▶ 2분기 이후,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투자 성과 보여질 것

<2018-05-15> 전자상거래 기반 생활문화 브랜드 리딩 기업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대표 김응상)가 올해 1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1억 원, 영업손실 7억 원, 당기순이익 0.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주력 사업인 위즈위드(WizWid)의 매출 하락과 해외영업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가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자체채널 위상 강화를 위해 제휴채널 판매를 전략적으로 중단하며 1분기 위즈위드 매출이 정체됐고, 해외 확장성 강화를 목표로 주요 거점 중심의 마케팅 투자비용이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메가시티(MegaCity)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영업 및 채널확대가 점차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글로벌 상품 소싱 및 판매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품 자동 등록 및 발주 시스템 기반의 IT기술 개발이 2분기 이후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가 전망되고 있다.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한층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 엡지 사업이 점진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의 중장기적 목표인 생활문화 브랜드 컴퍼니 빌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엡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1분기 실적은 지난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처분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표기

☐ 자료문의 : 아이에스이커머스 최영일 이사 (070-8709-5585)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02-6011-2000(#138))